

The Good Fight

July 21, 2024

Bo Stern-Brady

좋은 싸움 2024년 7월 21일 보 스텐-브래디

Context matters. I've heard lots of people over the past four years say that our political climate is the worst it's ever been and "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 I've heard justification for abandoning kindness or character because the times are so perilous that we must do whatever it takes to protect ourselves and our rights - even if that means forsaking the way of Jesus in the process.

Last week, I mentioned this: I don't actually agree that we're living in the worst cultural moment the world has ever seen.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in a minute, but the thing is: Even if this WERE the most difficult context in which to be alive and trying to follow God - would that change the way we are called to walk in our world? Would that alter our responsibility to the truth of the word of God and the way of Jesus?

I think God has something to say to us this morning, through Paul's letter to the NT church. We look at "Bible times" as sort of precious. We read about them in King James' English and imagine men in robes and words on scrolls and it can make our fast, noisy, high-tech, AI world look much more advanced, much more complicated and much more dangerous. But when I hear this notion advanced - this idea that we have it so hard - it makes me really frustrated because we serve a savior who was CRUCIFIED. Have you seen a crucifixion recently? Ever felt under threat of crucifixion? ALL his disciples were tortured and imprisoned or exiled and all but one was martyred in a brutal, treacherous way. That was their context. Paul is going to speak to us this morning through his letter, and he's going to talk about HOW we need to show up - in the church and in the world - and he's going to start by telling us the context from which he is writing:

맥락은 중요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적 분위기가 지금까지 최악이라고 말하며 "절박한 시기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더라도 정당화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계 역사상 최악의 문화적 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설령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기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바꾸게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예수님의 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바꾸게 할까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시대"를 다소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킹 제임스 영어로 그것들을 읽고, 로브를 입은 남자들과 두루마리에 쓰여진 글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빠르고, 시끄럽고, 첨단 기술의 **AI** 세계를 훨씬 더 발전되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위험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 생각을 들을 때면 정말로 좌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십자가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형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의 모든 제자들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유배되었으며,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잔인하고 배신적인 방식으로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맥락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아침 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글을 쓰는 맥락부터 이야기할 것입니다

Therefore I, a prisoner for serving the Lord, beg you to lead a life worthy of your calling, for you have been called by God. 2Always be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with each other, making allowance for each other's faults because of your love. 3Make every effort to keep yourselves united in the Spirit, binding yourselves together with peace. 4For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have been called to one glorious hope for the future. Ephesians 4:1-7 그러므로 주를 섬기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2**항상 겸손하고 온유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인내하며 서로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십시오. **3**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평화의 띠로 서로 묶으십시오. **4**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1-7**

For Paul the context is stated right up front: **As a prisoner in the Lord.** He understands that the culture around him is involved in a fierce fight for rights. Roman Empire vs. everyone under their thumb. Jews vs. Christians. The battle is hot. Christians are being killed. They have virtually no rights. He is in prison for no legal reason. This is the context from which he sees the work of God in his world and it's the context from which he writes to us. (Paul would've had no concept of a nation like ours. None. The historical moments of Jewish autonomy are few and far between. He's not living in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He's living at the whim of one of the most maniacal and evil dictators the world has seen. Nero.). 바울에게 있어서 맥락은 바로 앞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죄수로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문화가 권리를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로마 제국 대 피지배 민족들, 유대인 대 기독교인들. 전투는 격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바울은 합법적인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맥락이며,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나라 같은 개념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자치 시기는 매우 드뭅니다. 그는 '자유의 땅, 용기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미치광이이고 사악한 독재자 중 한 명인 네로의 변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Nero = 54-68 AD from age 16-30

“Nero’s reign has gone down in history as the template of tyranny...” Guy de la

Bédoyère 네로: 서기 54-68년, 16세에서 30세 "네로의 통치는 역사상 폭정의 전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가이 드 라 베두아르

² From Edward Champlin there is also this: **“Explain it as they may, no ancient writer denies that the common people of Rome loved what Nero was doing.”³ Needless to sa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nd given the general depravity of the Roman populace, this does not actually count for much, though it offers insight into the early Christian era.** CONTEXT! 에드워드 챔플린(**Edward Champlin**)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작가들이 어떻게 설명하든, 네로가 하는 일을 로마의 평민들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로마 대중의 일반적인 타락을 감안할 때, 이것이 실제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기독교 시대를 이해하는 데 통찰을 제공합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His history is sordid: His stepbrother publicly mocked him, so Nero and his mom, Agrippina had him killed. Four years later, Nero invited his mom to dinner and had her killed.

In 62 AD, he had his wife and step sister murdered. In 64 he lit his own city on fire and when the city turned on him, he began blaming the Christians for it. That’s when the fiercest persecution began. During this time, any Roman citizen could accuse any person of being a Christian and act as the prosecutor before a judge. If the Christian didn’t renounce their faith, they were killed. And if they were killed, the prosecutor got to keep their property. A death sentence had nothing to do with breaking the law - just wearing the name Christian was enough. It was a harrowing time to be a follower of Jesus.

Paul’s Missionary journeys began in 47AD and went through 57AD, he was in house arrest from 60-62 AD...finally condemned to death by Nero, as was Peter. This is Paul’s context. He understands what it’s like to live in the middle of an evil and chaotic system. And from his place on the timeline, he tells us: God is worthy of our worship and our obedience in EVERY context in which we find ourselves and, in fact, he doesn’t even mention anything ABOUT Nero or the political corruption or persecution of the day. If that were me, it’s all I’d be talking about! “Do you believe how unfair this is?” But when Paul does mention the civil authorities, this is what he says: 그의 역사는

음울합니다: 그의 의붓형이 공개적으로 그를 조롱하자 네로와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그를 죽였습니다. 4년 후, 네로는 어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살해했습니다. 서기 62년에 그는 아내와 이복 여동생을 살해했습니다. 64년에는 자신의 도시를 불태우고, 도시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자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장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로마 시민도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었고, 판사 앞에서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 검사는 그들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는 법을 어긴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서기 47년에 시작되어 57년까지 이어졌고, 그는 60년부터 62년까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네로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맥락입니다. 그는 악하고 혼란스러운 시스템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선에서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사실, 그는 네로나 당시의 정치적 부패나 박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나였다면, 그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민간 당국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petitions,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all people—for kings and all those in authority, that we may live peaceful and quiet lives in all godliness and holiness. 1

Timothy 2:1-2: 그러므로 나는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가 드려지기를 권합니다. 왕들과 모든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입니다. - 디모데전서 **2:1-2**

That's his instruction. Pray for everyone in authority - SO THAT we can live peaceful and quiet lives. This idea of peaceful, quiet lives is an echo of the text we're in today.

Paul says "walk worthy of the calling" on your life. Then he gives a small list of what that looks like and those ways are not at all combative - at least not with us and other people: 그것이 그의 지침입니다. 모든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이라는 이 개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반향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짧은 목록을 줍니다. 그 방식들은 적어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Humility : 겸손

Gentleness : 온유

Patience : 인내

Unity : 통합

Complete humility and Gentleness: I've thought a lot about this line this week. Complete humility. Why does Paul add that word 'complete'? Isn't humility something you have or you don't? You are or you aren't? And here's what it means to me: I may be walking in humility in certain areas and in pride and judgement in others. I may feel very humble about my own abilities and gifts while being very arrogant and judgemental about someone else's failures or opinions. Paul doesn't say change your opinions, he says: Walk in complete humility and complete gentleness. Always gentle. Kind. Compassionate.

Be patient with each other, making allowance for each other's faults because of your love. I love this instruction even though I don't love being patient. Paul is asking us to build the kind of community where we don't give up on people who hurt us or disagree with us. We don't walk away in exasperation - we stay patient. When I fight, I am impatient to get to a resolution and sometimes disagreements aren't settled in a minute. USUALLY disagreements aren't settled in a minute. Patience makes room for curiosity. "Why do you feel the way you feel? How did you come to these conclusions?" These kinds of questions are present in discussions that take time. (Right after we got married, Cliff and I were having a disagreement in the car on the way home from dinner. I felt myself shutting down and I just wanted to be done with the conversation and stop talking and when we got to our driveway, he didn't turn in. He just kept driving and said, "We're going to keep driving until you fight with me." He didn't WANT a fight, but he wanted unity and in fact, knows that without unity, we're pretty much sunk. So we drove and talked and drove and talked and landed - not on the SAME page- but on a new page altogether. A page we didn't know existed before we had that conversation. Before the conversation there was my way and his way...after it there was our way and there was also the understanding that my husband cared about our relationship too much to let us bury disunity in the periphery. He understood that it doesn't stay buried and that we had to patiently and kindly and humbly work through it to unity.) Our rules for disagreements are 1) Be kind 2) Be curious 3) Don't interrupt. These, I believe, are all wrapped up in Paul's instruction to handle one another with patience. 완전한 겸손과 온유: 이번 주에 이 구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전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단지 가지고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겸손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자만하고 판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능력과 재능에 대해 매우 겸손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패나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오만하고 판단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의견을 바꾸라고 하지 않고, 완전한 겸손과 온유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항상 온유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워야 합니다.

서로를 인내하며 사랑으로 서로의 잘못을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지침이 좋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상처 입히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좌절감에 빠져서 떠나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싸울 때, 저는 해결을 빨리 보고 싶어하고, 때로는 의견이 즉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견은 즉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내는 호기심의 여유를 줍니다. "왜 그렇게 느끼세요?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렀나요?" 이러한 질문은 시간이 걸리는 논의에서 나타납니다.

결혼한 직후, 클리프와 저는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의견 차이를 겪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중단하고 그냥 끝내고 싶어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차를 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까지 계속 운전할 거예요.” 그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통합을 원했습니다. 사실, 통합 없이는 우리가 거의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운전하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아니지만, 대화를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이 대화 전에는 제 방식과 그의 방식만 있었으나, 대화 후에는 우리의 방식이 생겼고, 남편이 우리의 관계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불화가 주변에 묻히지 않도록 한다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는 불화가 묻혀 있지 않고, 인내하고 친절하며 겸손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의견 차이에 대한 규칙은 **1) 친절하라 2) 호기심을 가지라 3) 중단하지 말라**입니다. 이것들이 바울의 인내로 서로를 다루라는 지침에 모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Unity through the bond of peace.

Unity = 1775 henótēs (from heis, "one") – oneness (unity), especially the God-produced unity (oneness) between believers – i.e. the harmony from sharing likeness of nature with the Lord (used only in Eph 4:3,13).

Unity doesn't actually come from sharing all opinions in common. (Do you think we'll have differing opinions in heaven? I hope so. My friend Steve cannot imagine a heaven where you aren't able to watch 27 uninterrupted hours of Lord of the Rings and I can't imagine a heaven where I'm forced to watch Lord of the Rings.) Our differences make us unique. Revelation describes a heaven of every 'tribe, nation and tongue'. I don't believe we're going to be homogenized in heaven into amorphous blobs who think and talk and act like robots. But I think heaven will be heaven because we'll understand how beautiful our differences are, how little significance there is in 'being right', and how truly incredible it is to live in unity.

These words are gentle, but don't be fooled - they're also fierce. These are the words to which we are called. This is what we're called to fight for in the Body of Christ. Unity through the bond of peace. We are called to do the WORK of unity and that's a tough one because we often see unity as something we join up with. I'm going to find a church where I agree with the worship and the teaching and the way people interact with one another in community. Sometimes we choose a church like we choose a dinner off a menu or the political party by their platform. And that's not bad - but it also won't last. We will always run into a hitch. A glitch. A difference of opinion that makes us angsty or angry or even furious. We will make stupid mistakes and hurt each other with our words or decisions or attitudes. The unity we start with, will not naturally maintain itself...sometimes, we'll have to roll up our sleeves and do the work of unity. We are called to CREATE unity. To work for it. To fight for it. To die to ourselves in order to see it come to life before our eyes. Unity is the good fight because of this:

평화의 띠로 하나 되다.

하나됨 = 헬라어 **1775 henótēs (heis, "하나"에서 유래)** – 신이 만들어 주신 신자들 사이의 일치, 즉 주님과 의 본질적 유사성에서 오는 조화 (에베소서 **4:3, 13**에서만 사용됨).

하나됨은 모든 의견을 공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의견이 다를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 친구 스티브는 27시간 **uninterrupted**한 반지의 제왕을 볼 수 없는 천국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고, 저는 반지의 제왕을 강제로 봐야 하는 천국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지파, 민족, 언어'가 있는 천국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로 동화된 무형의 덩어리가 되어 로봇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차이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옳다'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의미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천국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드럽지만, 속지 마세요 - 그것들은 또한 강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싸워야 할 목표입니다. 평화의 띠로 하나됨. 우리는 하나됨의 일을 해야 하며, 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됨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와 가르침,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 방식에 동의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메뉴에서 저녁을 선택하거나 정치적 플랫폼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듯이 선택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결함이나 의견 차이로 인해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심지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말이나 결정, 태도로 서로를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하나됨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창조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일하고, 싸우고, 우리 눈앞에 그것이 살아나도록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이 때문에 좋은 싸움입니다:

For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have been called to one glorious hope for the future.

Ephesians 4 "우리는 하나의 몸과 하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의 영광스러운 희망을 향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에베소서 **4:4**

ONE body and one Spirit and we are called to ONE glorious hope. One. One. One. WE are called to serve ONE God from a million different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We are called to be ONE body in the midst of a thousand different worldviews. HE is the hope to which we are called.

The work of this makes us better. It makes us more like Jesus and it builds trust and strength into our community.

Here in America, in the year 2024, we are faced with a crisis of contention. I don't think this is the most contentious political event America has ever faced (one vice president killed the former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a duel over a

disagreement), but it is the most contentious election I'VE ever witnessed. And for the past few years, this contention has taken root in the heart of the church. Evangelical churches used to enjoy greater unity on presidential candidates and on the direction for our country. Those days seem like a dust in the rearview mirror. Now it feels like we're all mad all the time. So how do we face the next four months and the next four years and the next four decades as those who have strong opinions, yet desire to walk worthy of the call of God on our lives? 하나의 몸과 하나의 성령,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희망을 향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우리는 백만 가지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 가지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희망입니다.

이 작업은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더 닮아지게 하고, 우리 공동체에 신뢰와 힘을 더합니다.

미국, **2024**년 현재 우리는 분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정치적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부통령이 의견 차이로 전 재무장관을 결투에서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가장 논란이 많은 선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논란은 교회의 심장에 뿌리내렸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예전에는 대통령 후보와 나라의 방향에 대해 더 큰 일치를 누렸습니다. 그 시절은 이제 거울에 남은 먼지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항상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고자 하는 우리는 앞으로의 **4개월**, **4년**, 그리고 **40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Humility
Gentleness
Patience
Unity

Paul makes no exceptions in his list “except for in really, really nasty election years.” He makes no room for us to indulge in the clamor of our context and claim that it exempts us from the good fight of unity. 바울은 그의 목록에서 어떤 예외도 두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끔찍한 선거 연도를 제외하고는.” 그는 우리가 우리 상황의 시끄러움에 빠져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선한 싸움에서 면제시킨다고 주장할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Humility
Gentleness
Patience
Unity

As ONE body we fix our eyes on Jesus, our ONE hope for the future. He is our one hope. And that's the page on which we will land together in 2024 and beyond.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하나의 미래 희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2024**년 이후로 함께 도달할 페이지입니다

COMMUNION 성체성사 RESPONSE 응답

Keep a close watch on your own heart.

-Where or in whom have I placed my trust?

Keep short accounts. (Let go of offense quickly)

Keep showing up.

How would we serve Jesus and walk out our faith if we were scooped up and deposited in North Korea? We live it out the same way here. We live committed to the ONE body, ONE Spirit and ONE hope for the future. Our hope is not invested in a specific outcome...our hope is always and only in Jesus.

자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내가 어디에, 혹은 누구에게 신뢰를 두었는가?

짧은 계좌를 유지하십시오. (빠르게 불쾌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계속해서 나타나십시오.

만약 우리가 북한에 끌려가서 배치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까요? 우리는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 하나의 성령, 그리고 하나의 미래 희망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희망은 특정한 결과에 투자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항상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